

음란물 판결로 금서 낙인, 그러나 그 속엔 세상에 대한 참모습이 담겨 있었으니...

표정훈

유럽에 배낭여행 온 미국 남성 제시(에단 호크)와 프랑스 여성 셀린(줄리 델피)의 강렬하면서도 청순했던 14시간에 걸친 사랑을 그린 영화로 <비포 선라이즈>가 있다. 그 영화의 후속편인 <비포 섀셋>에는 파리 센 강가에 있는 서점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나온다. 9년 전 14시간의 짧은 사랑과 이별 체험을 소설로 쓴 제시는, 작품홍보를 위해 유럽을 순회 중 마지막 일정으로 파리의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방문한다. 영어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는 셀린이 그곳에서 작가 이벤트가 열린다는 걸 알고 찾아와 그들은 9년 만에 재회한다.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1922년 작가 제임스 조이스(1882~1941)의 《율리시즈》를 출간한 출판사 겸 대본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현재의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그곳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1918년부터 제임스 조이스는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리틀리뷰>에 《율리시즈》를 연재했다. 그러나 작품에 섹스, 자위, 배설 등이 나오자 평론가들은 저질이며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1920년에 '죄악 금지회the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Vice'라는 단체가 <리틀리뷰>를 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은 연재금지 처분과 함께 편집자 제인 힙과 마거릿 앤더슨에게 각각 벌금 50달러를 몰도록 했다. 법원 판결 이후 우체국은 《율리시즈》가 실린 잡지를 폐기처분했다.

1921년에 《율리시즈》를 완성한 제임스 조이스는 뉴욕 대신 파리를 택해야 했다. 판결소식을 접한 조이스는 "이제 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할 거야"라며 탄식했지만,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운영하던 실비아 비치의 격려와 노력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마흔 살 생일인 1922년 2월 2일 파리에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리의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에서 출간한 《율리시즈》 가운데 미국으로 건너간 일부가 우체국에서 불태워진 것은 물론, 영국으로 건너간 책 역시 세관에서 몰수당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내가 램프를 켜했을 때 그가 지닌 그 엄청난게도 크고 짐승 같은 불은 것을 가지고 세 번인지 네 번인지 담벼들었음에 틀림없어요. 도대체 혈관인지 똥지는 몰라도 막 터질 듯 하더라니까..(중략)..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난 양의 정액을 갖지는 않았어. 정말로 굉장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이더러 그걸 빼게 하고는 위로 올라오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층 기분이 좋았어요. 절대로 흘러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



《율리시즈》(전4권) 제임스 조이스 지음 | 김종건 옮김 | 범우사 | 각권 440쪽 내외 | 각권 값 10,000원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 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기撰家'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책은 나만의 운명을 지낸다》《탐서주의자의 책》《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고대문명의 환경사》《진영첩의 주자강의》《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에는 그이더러 속에서 해치우도록 했지...(중략)··· 게다가 그이는 저물도록 커다란 엉덩이뼈를 가지고 나를 덮쳐오니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 에도 그이의 털 많은 가슴을 가지고. 정말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언젠 나 드러누워 있어야만 하더니 그이가 뒤에서 밀어 넣는 것이 한층 나을 거 야. 마스티안스키 부인이 내게 일러준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녀의 남편은 그녀더러 마치 개(犬)가 하듯 그렇게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혀를 길 게 내뿜도록 말이야.

《율리시스》의 제18장 '침실·페넬로페'의 일부다. 요즘 기준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정말로 진하고 야한 작품들에 비한다면, 표현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1920 년대에는 여성 등장인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체험담을 자세히 늘어놓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법하다. 음란 혹은 외설을 법 적으로 정의한 최초 사례는 1868년 영국의 '레지나 대 히클린' 판 결에서 찾을 수 있다.

가톨릭 신부의 부도덕을 그린 252권의 음란간행물을 폐 기하라는 판결로서, 당시 코크번 대법관은 특정 표현이 감수성 예 민한 사람들을 타락으로 유도할 영향력의 유무를 음란의 기준으 로 제시했다. 이는 문학성과 예술성은 고려하지 않고 도덕적 잣대 로만 작품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작품의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특 정 문장만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율리시스》에 대한 법 적인 판단도 바로 그런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33년 12월 6일, 한 달에 걸쳐 《율리시스》를 다 읽은 뉴욕 지방법원 판사 존 M. 울시는 "외설은 성적충동을 일으키거나 성적으로 불결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율리시스》의 내용이 다소 메스껍기 는 하지만 성욕을 자극하는 대목은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듬 해 1934년 《율리시스》는 미국 뉴욕의 랜덤하우스에서 출간됐다.

《율리시스》는 작가의 고향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무대로 1904년 6월 16일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유대계 광고업자 레오폴드 블 룬과 그의 아내 마리온, 그리고 시인 기질이 있는 교사 스티븐 디 달러스 등이다. 《율리시스》라는 제목에 걸맞게 호메로스의 《오디 세이아》의 구성을 원용했다(율리시스는 오디세우스의 로마식 이 름). 블룬은 오디세우스, 마리온은 페넬로페, 디달러스는 텔레마 코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디세이아》와 마찬가지로 18개의 삽

화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삽화도 《오디세이아》의 각 삽화와 대 체로 대응된다.

"나는 《율리시스》 속에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감추어 두었기에, 앞으로 여러 세기에 걸쳐 대학 교수들은 내가 뜻하는 바를 찾아내고 논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조이스 자신도 이렇게 말했거니와, 대부분의 우리에게 《율리시스》는 난공불락의 요새처 럼 다가가기 십상이다. 줄거리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을지 의심스 러울 정도로 줄거리는 이해하기 어렵게 꼬여 있고, 신화와 상징체 계를 원용한 갖가지 트릭이 숨어 있는 데다가, 인물, 상황, 장소 등이 모두 복합적이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다가가는 지름길은 없을까?

국제제임스조이스재단(IJF) 회장 마고트 노리스의 조언 에 따르면 이렇다. 《율리시스》를 비롯한 조이스의 작품에서 사실 주의적인 구성이나 줄거리, 인물묘사를 억지로 찾아내려 하지 않는 게 좋다. 요컨대 소설에 대한 통념을 포기하는 게 좋다. 중요한 건 조이스가 최초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관해 쓴 작가라 는 점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얼마나 서로 다를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율리시스》 를 읽으면서 어떤 일이든 미리 판단한 부분은 없는지, 편견을 갖 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항상 돌아켜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 들의 다른 생각을 배려할 수 있다.

세상은 결코 바둑판처럼 정연하지 않다. 스티븐 디달러스 가 18시간 동안 더블린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치렀던 경험과 그의 생각의 미로처럼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기 마련이다. 세상을 '바둑 판 세상'으로 여겼던, 아니 그렇게 여기거나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제임스 조이스와 그의 《율리시스》는 세상의 참모습 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 참모습은 단단한 통념과 선입 견의 빛을 잠시라도 꺼둘 때, 조이스가 말하는 '별들의 하늘나무' 처럼 다가올 것이다.

집 뒤에 난 통로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부터 정원의 반그림자 속으로 주인은 앞에 손님은 뒤에, 그렇게 두 사람이 조용히 주위보다 두 배는 더 어두운 처림으 로 등장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물기 머금은 암청색 열매들이 매달린 별들의 하늘나무. **김민**